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 우리가 나누는 18장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정신없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며, 전진해 왔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는 큰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땅을 분배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수 18: 2)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 받기 위해 나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수 18:3) 사명과 축복을 향해 전진하던 이스라엘이 사명과 축복 앞에서 멈추어 서게 된 순간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땅 분배의 한 가운데서 꽤 긴 시간을 멈출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몇가지 이유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일곱 지파에게 불만이 생겨서, 땅을 분배받고 남은 땅을 점령하는 일을 거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적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랜 전쟁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온전히 이루고,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잠깐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 축복과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었고,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땅을 분배받고, 점령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수 19:51)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혹시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 앞에서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며, 지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설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 새로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동안 회막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회막을 왜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을까요? 길갈은 요단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주요 지역을 점령하고 나니 길갈은 한쪽으로 치우진 곳이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회막을 실로로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예배를 그들의 중심에 세우고,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 줍니다. 우리가 주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사명과 축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예배를 삶의 중심에 세우고, 새로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 첫번째 해야 할 일이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일곱 지파에도 이미 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 앞에서 조금 지체되고, 남들보다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겨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자꾸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비전의 그림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일곱지파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4~6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뽑아 그들이 남은 땅을 그림으로 그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제비를 뽑아 취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지명이 적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지파는 땅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뽑아 땅을 분배받고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맡기신 사명이 그림이 되는 것이 저는 비전을 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약속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그림으로 생생히 보여지고, 그것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때,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한 사명과 축복 앞에서 주저 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1-2)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5/15(월)	5/16(화)	5/17(수)	5/18(목)	5/19(금)	5/20(토)	5/21(주일)
대상10-12	대상13-16	대상17-19	대상20-22	대상23-26	대상27-29	대하1-4

QT

이번 주 QT 말씀

5/15(월)	5/16(화)	5/17(수)	5/18(목)	5/19(금)	5/20(토)	5/21(주일)
삼하15:13-23	삼하15:24-37	삼하16:1-14	삼하16:15-23	삼하17:1-14	삼하17:15-29	삼하18:1-15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의 자리에서 멈추거나 지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3. 다시 사명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결심한 것을 나누어 주세요.